

8주차 | 학습목차



학습목차

01. 역사적 배경 - 산업화와 경제의 국가

- 산업화 시기의 경제
- 여성 노동자들과 국가 이데올로기

03. 여성들의 경험

- 여성 노동자들의 공장 생활
- 그들이 부딪힌 문제들

학습목표

02. 여성 노동자의 등장

- 여성 노동자에 대한 시각 - 이분법을 넘어서
- 도시로 간 여성들

04. 여성 노동운동과 그 의미

- 70년대 노동운동의 개요
- 여성들의 노동자 의식 형성
- 여성 노동운동의 의미

학습내용

8주차 |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



2차시

여성 노동자의 등장

8주차 | 학습목표

2차시.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산업화 시기에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 여성들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.
- 공장 노동자 여성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여성 노동자에 대한 시각 - 이분법을 넘어서
- 도시로 간 여성들

여성 노동자에 대한 시각 -

이분법을 넘어서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이번 차시에는...

-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‘등장’
- 농촌에서 도시로 와서 공장 노동자가 된 여성들의 이야기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수출공단 설립

- 정부주도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
단순가공 무역형 공업구조 형성
- 서울 구로, 이리 (현 익산), 마산 등에 수출 공단 설립
-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여 제품 생산하기 위한 기반



박정희 대통령의 구로공단 시찰

[출처01] 국가기록원 (관리번호 : CET0028976)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제조업 여성 노동자

- 섬유, 의류 산업
- 봉제, 시다, 피혁 제조 등
- 저임금 노동집약적 하위 직업을 여성들이 주로 담당
- 대개 가난한 농촌 가정, 초등/중학교 마친 후 도시로 온 경우



공장의 여성 노동자들

[출처02] 서울역사아카이브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산업화 시기 노동자들에 대한 두 관점

- 1 위로부터 국가의 산업화 전략에 순응한 ‘유순한 노동자’
 - 국가주도형 산업화, 국가와 기업의 효율적인 노동 통제를 강조하는 관점
- 2 유신체제와 반인권적 노동 조건에 맞서 투쟁한 노동자
 - 19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을 다루는 맥락에서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산업화 시기 노동자들에 대한 두 관점

- 1 유순한 노동자에 대한 관점
 - 사회적 변화와 노동자들의 주체적 관점을 결여했다는 비판
- 2 노동 투쟁사의 관점
 - 당시 사회와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에 존재한
중층적인 모순을 보지 못하고 저항/동이라는 이분법에 빠질 우려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중층적이고 다면적인 당시 노동자들의 일상

- 두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당시 여성 노동자들의 경험의 일상성,
중층적 조건을 볼 필요가 있다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도시로 간 여성들

여자 공장 노동자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?

- 가족과 남성 형제들을 위해 희생한 누이로만 이해할 것인가?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여성들이 도시로 간 이유

1 가족 부양

- 대부분 어려운 가정 형편
- 농촌 출신이 많음
- 돈을 벌게 되면서 부양 받는 의존자의 모습이 아니라 독립적 주체,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의 면모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여성들이 도시로 간 이유

2 교육의 기회를 찾아서

- 가족 부양을 위한 경제활동, 아들 딸 차별, 농촌 환경
- 공부하고 싶어서, 도시에서 살고 싶어서 이동한 여성들
- 여성들의 '소극적인 위반'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 여성들의 '자발적인 이탈'

// 할머니가 서울은 눈뜨고 코 베가는 세상이라며 기를 쓰고 말렸지만,
죽어도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보따리를 싸 가지고
이웃 동네 친구를 따라 서울로 갔다 //

최순영 구술, 정미경, "근대화와 1960-70년대 여성 노동자 -
여성노동자 형성과정을 중심으로," 경제와 사회 61, 2004.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도시로 간 여성들

- 가족 부양이라는 의무를 진 것이지만 (가부장제에 순응)
- 한편으로는 여성들이 젠더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 가족, 농촌의 현실을 탈출한 선택 (적극성, 자발성)
-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으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게 됨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그녀들이 마주친 도시의 현실

- 동경하던 도시의 모습과는 다른 달동네와 영세공장의 열악한 현실



여공들의 숙소로 이용되었던
가리봉동의 별집

[출처03] 서울역사아카이브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작업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

- 남녀 노동 사업장이 구분
- 상위 직급에 남성, 하위 직급에 여성
- 같은 직급이라도 남성이 더 많은 임금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“ 그녀가 간 곳은 슬라브로 된 이런 빈민같이 아주 허술한 집에 있는 염색공장이었다.
아주 작은 방에서 12시간 교대근무를 하는데, 낮에 8명 밤에 8명이 일했다.
다른 8명이 일하는 동안 쉬는 사람은 같은 방 한켠에서 잠을 잤다.
밥도 명절이라고 돼지비계 동등 뜨는 국을 주는데 그것도 못 먹겠고,
라면을 처음 먹어봤지만 그것도 먹을 수 없었다...”

최순영 구술, 장미경, 앞의 논문.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등급화 - 연령, 학력, 외모

- 중대기업에서는 어린 나이, 미혼 여성을 선호
- 영세업체와 소규모 기업에서는 근로연령 미달의 여성들을 채용
- 여성들은 나이를 속여 대기업에 취업하기도
- 여성은 결혼 전까지만 일하는 관행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이번 차시에는...

- 농촌의 여성들이 도시로 떠난 동기
- 그녀들이 마주한 도시의 현실
- 다양하고 때로는 서로 모순되거나 중층적인 경험이 존재

8주차 근대화와 여성 노동자 (1970-80년대) | 2차시 여성 노동자의 등장



다음 차시에는...

- 여성들의 공장 노동의 경험

SOURCES



[출처01] 국가기록원 (관리번호: CET0028976)

<http://theme.archives.go.kr/viewer/common/archWebViewer.do?singleData=Y&archiveEventId=0051923763>

[출처02] 서울역사아카이브 (아카이브번호: H-TRNS-1036-728)

[출처03] 서울역사아카이브 (아카이브번호: H-TRNS-53688-444)



기획·조정
이화진·정다영

교안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김록현